

서 彫像의 風化가 甚하나 保存되어야 할 것이다.
 (高二七 cm 長一一二 cm 幅二一九 cm) 서울市 惠化洞 全忠信氏宅에서 崔淳
 雨 鄭永鎬 兩氏와 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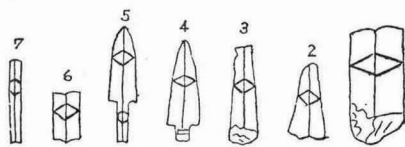
將座像을 側面에는 一軀씩의 보다 작은 座像(神將?)을 彫刻하였다. 上面에는 一段의 받침이 있고 各面의 柱形에는 둥근 花文帶가 裝飾되어 있으나 眼象의 手法는 아니 보인다. 用途는 不明이나 底面에 長方形 突起 (高五 cm 長四一 cm 幅一三 cm)가 있고 上面 中央에도 同一한 加工의 隆起된 痕跡이 보이고 있어 元來下面에서 地臺石에 插入되고 上面에서 어떠한 石造物(碑身形?)을 支撐하였던 臺石으로 推定된다. 淡紅色을 띤 砂岩質의 花崗石으로

忠南 發見 石器 數點

(一) 唐津郡 合德面 城東里 出土 石器
 合德面 蓮湖 附近 城東山에서 出土
 石劍과 石鏃인

李 殷 昌

- 1、磨製石劍片其一(黑色粘板岩·中間部分·現存長五·五 cm)
- 2、磨製石劍片其二(黑色粘板岩·鋒端部分·現存長三·五 cm)
- 3、磨製石鏃其一(黑色粘板岩·鋒端部分·現存長四·六 cm)
- 4、磨製石鏃其二(黑色粘板岩·有莖式柳葉形·完存四·八 cm)
- 5、磨製石鏃其三(黑色粘板岩·有莖式柳葉形·完存五·五 cm)
- 6、磨製石鏃其四(黑色粘板岩·破片中間部分·現存長二·三 cm)
- 7、磨製石鏃其五(黑色粘板岩·破片莖部·現存長四·二 cm)



唐津郡 合德面 城東里 出土 石器
 (實大 1/2 縮圖)

(二) 瑞山郡 所遠面 柿木里 出土 石器
 土城址下에 立石이 있고 이 立石이 있는 洞里 丘陵에 所在한 柿木國 民學校 敷地 工事中 出土

- 1、磨製石劍(黑色粘板岩·切半部分·現存長二·五 cm)
- 2、磨製石鏃其一(黑色粘板岩·有莖式柳葉形·完存七·七 cm)
- 3、磨製石鏃其二(黑色粘板岩·有莖式柳葉形·完存三·四 cm)

(三) 公州郡 定安面 田坪里 出土 石鏃
 石鏃……卵白色 泥板岩 磨製 總長 六·八 cm 幅 一·八 cm 四角柱인데 若干의 「엔타시스」가 表示되고, 單刃이다. 研磨가 極히 精密할뿐만

아니라 예쁘장한 小形은 實用的이라기보다 마치 玩好之物로 된 感을 준다(以上大德郡窪洞國民學校長 金石出氏所藏)

④ 瑞山郡豆腐面丁壯里出土石劍

小形石劍……丁壯里 벌음洞 立石附近 河川邊에서 出土된 것으로 灰黑色頁岩磨製이며 現存長九·八cm인데 有柄式柳葉形石鏃과도 같으나 크기와 形態로 보아서 石劍으로 推定된다(筆者所藏)

考古美術 卍—△

◎ 石窟庵現場視察과 設計檢討

文化財委員長 金庠基氏 同第三分委員長 朴萬奎氏 黃壽永氏 秦弘燮課長은 十月十七日午後 現場에 到着하여 進行狀況을 視察하였으며 翌十八日午後에도 경주에서 이날 到着한 金重業委員과 함께 設計案, 特히 前室과 石階段에 對한 圖面說明과 復元的 觀點에서의 論議가 있었다. (柳海宗 洪思俊兩氏參席) 金庠基 朴萬奎 兩委員은 十九日 軍威三尊石窟을 視察하고 上京하다. 此外에 十七日에는 佛國寺 境內環境工事 特히 無說殿址工事を 視察하였다.

◎ 文化財 第一分委(十三次)

十月十四日 文化財管理局會議室에서 開催되었는바 出席委員은 金庠基 金斗鍾 李相佰 李弘植 金元龍 金重業 黃壽永 外文局長 秦文化財課長 韓管理課長

一、國寶再指定…委員四人이 贊成한 것과 其他保留된 것을 再檢討하여 二點을 選定하다.

一、補修…福景宮內 勤政殿行閣 慶會樓丹青 禁川橋移轉……可決
一、其他…山清泛鶴里三層石塔(今在景福宮庭園)의 地臺石을 原所在地에 移轉 復舊시킨다.

• 軍威郡 伍溪面 石窟調查團報告(李弘植) 名稱「軍威三尊石窟」로 假指定하다.
• 春川市 校洞 石器時代穴居遺址調查報告(金元龍) 名稱「春川校洞穴居遺址」로 假指定하다.

• 無量寺極樂殿(秦弘燮氏報告) 補修는 原則上 決定하고 申榮勳氏의 再調査期

한다.

• 石窟庵工事報告 金重業 黃壽永 兩委員의 報告가 있었고 兩人이 現地에서 設計圖面을 檢討한 후 早速히 그 案을 提出키로 하다. 아울러 黃委員은 로부터 서울 大學校調查團의 報告會에 委員出席을 要請하다.

◎ 文化財第一分委(十四次)

十月二十二日 文化財管理局에서 開催되었는데 出席委員은 金庠基 金載元 金斗鍾 李弘植 金元龍 金重業 黃壽永과 文局長 秦課長

一、石窟庵石窟의 補修工事現況報告(金庠基, 黃)에 이어서 金重業委員은 로부터 設計案 特히 前室架構에 對한 圖面과 模型에 對한 說明이 있었고 이에 對하여 黃委員은 로부터 復原案에서의 發言이 있었다. 同委는 金, 黃兩人을 除外하고 對策을 論議한 結果 設計에 있어서는 金委員以外에 他人을 選定하여 十一月末까지 別案을 作成케 하며 黃委員의 渡印件에 對하여서는 設計의 原則과 輪廓이 들어남 때까지 保留하여 出發을 延期토록 決議하였으며 監督解任件은 保留되었다.

二、扶餘長蝦里石塔舍利의 再納不能의 報告가 있었고 앞으로는 信仰上으로 舍利만은 再納塔한는 原則으로 삼기로 하다.

三、경주 雁鳴池附近 苗圃設置件은 承認

四、江陵烏竹軒 丹青은 不許키로 하다. 但 御書閣 및 室內는 整備키로 하다.

五、蔚州青松寺址石塔第一塔身의 破片은 再施工하여 附着시키기로 하다.

六、社稷壇表門工事 및 施工者 趙元載에 對한 處理는 管理局에 一任키로 하다.

七、故全靈弼氏所藏品 目錄作成案에 對하여 秦課長은 로부터 的報告가 있었고 그 具體案이 崔淳雨氏에 의하여 作成된 後 再議키로 하다.

八、業者指定問題에 있어서 新規의 追加는 保留키로 하다(臨時指定業者業體變更을 審議하다.)

九、再分類指定된 國寶名單과 「文化財愛護期間實施要領」의 配付가 있었다.

◎ 文化財 第一分委(十五次)

十月三十日 南大門 立柱式에 이어 午後四時부터 그랜드호텔에서 緊急會議을 召開했는데 出席委員은 金庠基 金載元 李相佰 金元龍 黃壽永 委任各委員과 文局長 秦課長이 參席하였다. 이 會議에서 石窟庵設計對策이 討議되어 다음과 같은 原